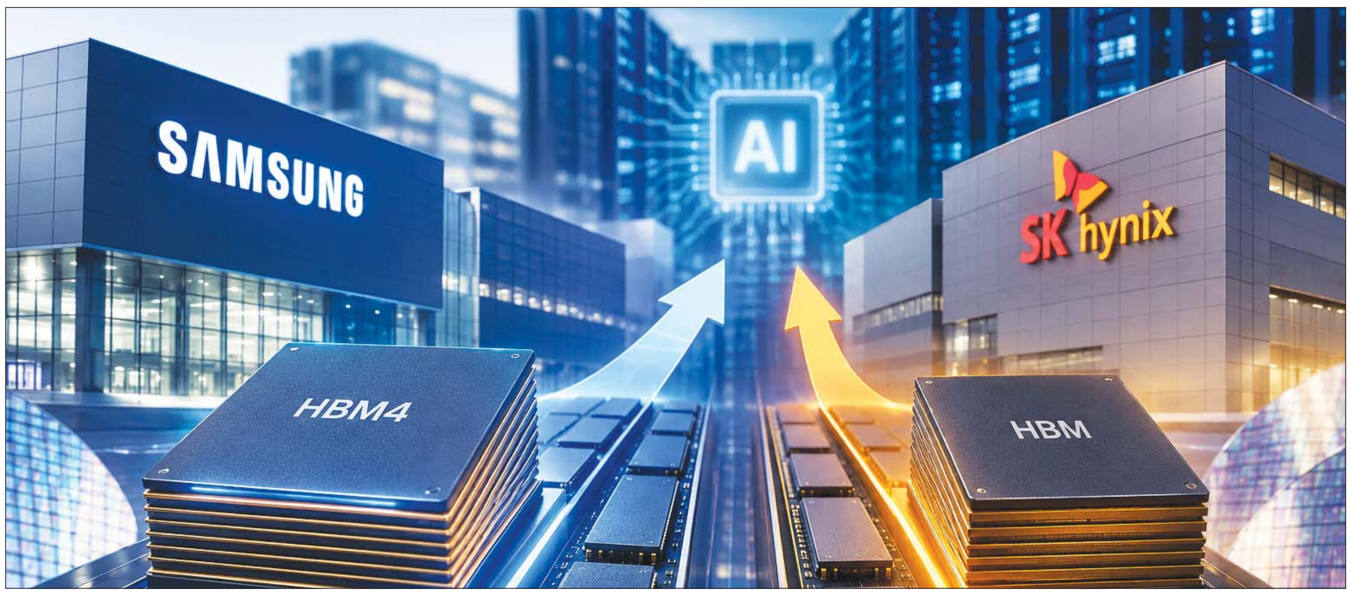
삼성, D램 1위 굳히고 HBM 추격… 하반기 HBM4 승부

D램 점유율 39%로 삼성 선두 유지
SK하이닉스와 격차 14.5%p로 확대
HBM 점유율 21%서 33%로 상승
생산능력·장기공급계약 향후 승부처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격차를 벌리는 동시에 그동안 뒤처졌던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격차를 절반 이하로 좁혔다. 특히 하반기 HBM4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사의 메모리 주도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8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39.4%로 선두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는 24.9%로 뒤를 이었다. 삼성은 전분기보다 0.9%포인트(p) 오른 반면 SK하이닉스는 3.9%p 떨어지면서 양사의 차이는 9.7%p에서 14.5%p로 벌어졌다.

삼성전자의 D램 매출은 609억8000만 달러(약 84조원)로 전분기보다 63.4% 증가했다. SK하이닉스도 385억9000만달러(약 53조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증가폭은 37.9%로 삼성보다 작았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가 주요 D램 3사 가운데 비트 출하량을 가장 큰 폭으로 늘렸다며 HBM4 조기 양산과 출하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 이미지.

D램에서 우위를 확대한 삼성전자는 HBM에서도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빠르게 줄였다. 2분기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50%로 선두를 지켰지만 삼성전자는 한 분기 만에 21%에서 33%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양사의 점유율 차이도 37%p에서 17%p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점유율 하락에는 HBM 가격도 영향을 미쳤다. SK하이닉스는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쟁사보다 높아 HBM3E 가격 하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 여기에 장기공급계약(LTA)을 경쟁사보다 일찍 체결한 탓에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분을 매출에 반영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 출하를 늘리며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당시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1년 만에 33%까지 올라섰다. 반면 SK하이닉스는 64%에서 50%로 낮아졌고 마이크론도 21%에서 18%로 소폭 하락했다.

HBM 시장의 향후 점유율 변화는 HBM4 출하에 달려 있다. 현재 HBM 매출 대부분은 HBM3E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HBM4 물량이 늘면서 세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의 HBM4 출하 증가가 추가적인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6세대 10나노급(1c) D램과 자체 4나노 로직 공정으로 생산한 베이스다이를 적용한 HBM4의 양산과 상용 출하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HBM4 공급 확대에 맞춰 생산능력도 늘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4나노 공정 생산능력의 절반 이상을 HBM4 베이스다이에 투입해 평택 파운드리 라인을 사실상 풀가동하고 있다. 3분기 HBM4 매출은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HBM 매출에서 HBM4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도 2분기 양산 출하를 시작한 HBM4의 생산량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늘린다. 차세대 제품인 HBM4E는 상반기 고객사에 샘플 공급을 마치는 등 후속 제품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품 공급 확대와 함께 고객사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주요 전략 고객을 포함한 약 10곳과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으며 추가 고객사와도 다년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HBM4를 비롯한 고부가 메모리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닐 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리서치 부사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충분한 생산능력을 누가 확보하느냐와 장기공급계약(LTA)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조정 끝낸 코스피… "추세적 회복 사이클 본격 진입"

기업이익 전망 높아지며 펀더멘털 강화
가격 부담 크지 않아 추가 상승 가능성
外人 수급 회복하며 시장 온기 확산
美 장기금리 상승과 유가 강세 부담

코스피가 8일 장중 7000선을 터치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제약했던 반도체 업종의 실적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이익 체력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이번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추세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단순한 기술적 반등보다 회복 사이클"… 추세적 상승 기대

전문가들은 코스피 반등의 핵심 동력으로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투자심리 회복을 꼽는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오픈AI는 보안등급 '위험'(Critical) 단계로 평가된 새 AI 모델 '아스트라'를 출시하면서 메모리 수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직접적인 코스피 상승 재료는 오픈AI 아스트라 공개에 따른 AI 수요 기대 회복이었다"면서 "코스닥과 중·소형주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금리 부담이 전반적으로 해소됐다기보다 반도체 실적에 대한 확신이 강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시장 전반에 온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순히 특정 대형주 몇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상승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위기 및 폭락 국면이 종료되고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9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6300~7600포인트로 제시했다.

하나증권도 기업이익 전망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필요한 성장통을 충분히 거치며 추세를 복원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높은 금리를 비롯한 매크로 부담도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을 통해 상당 부분 소화했다는 분석이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7000선 회복을 추세적 반등으로 본다"며 최근 반도체 조정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수급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엔비디아의 2027년 가이던스나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주 추이를 볼 때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었고, 주가가 뒤늦게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판단이다.

이 센터장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AI 수요와 고대역폭메모리(HBM)·D램(DRAM)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고, 이는 국내 반도체주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금리·인플레이션 변수… 외국인 수급 흐름도 중요

7000선 안착을 가를 변수로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매크로 환경이 지목된다.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고개 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는 연준이 9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연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박 센터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고,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유가 강세가 부담 요인"이라고 짚었다. 다만 "매크로 변수와 무관하게 AI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AI 투자의 유효성이 확인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AI 투자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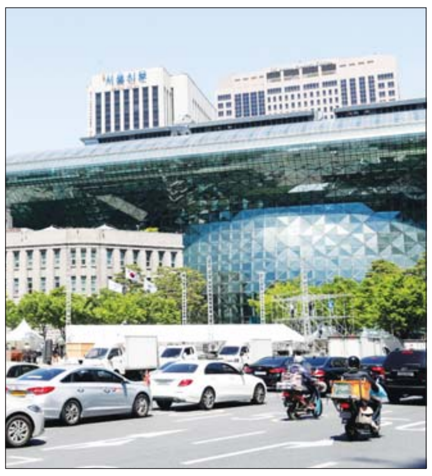
/신하은 기자 godhe@

"장기전세 7년 살고 내 집으로"… 퇴거 10가구 중 7가구 자가

평균거주 7년6개월, 20년 절반 못 미쳐
조기 퇴거 82% 자가 구입·민간전세
평균 보증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 41%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가구 10곳 중 7곳 이상이 이후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실제 퇴거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년6개월에 그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를 바탕으로 자산을 모은 뒤 내 집 마련 등 다음 주거 단계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4개월이었다. 이 가운데 퇴거 후 자가에 거주한 가구는 72%로,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 60%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9월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한 가구는 1만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현재까지 퇴거한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도 7년6개월로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의 절반에 못 미쳤다. 서울시는 상당수 입주 가구가 장기전세주택에 머무는 동안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저축과 청약 등을 준비한 뒤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주거 상향 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도 자산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만원의 약 41% 수준이다.

현재 입주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과 인근 단지 평균 전세 시세의 차이를 합하면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입주 당시 보증금을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정하고, 입주 후 보증금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낮은 주거비는 저축과 청약으로도 이어졌다. 2022년 SH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달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였다. 향후 희망하는 주거 형태로는 입주자의 61.3%가 민간 아파트를 꼽았다.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0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의 최장 4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전체 장기전세주택 단지의 45%는 지하철역 반경 500m 안에 있으며 83%는 초등학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서울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3만8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5715가구가 입주했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뒤 비워진 주택은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다시 공급된다.

내년부터는 제도 도입 초기 입주자들의 20년 만기도 처음 도래한다. /이현진 기자 lhj@